

보도시점

2025. 7. 21.(월) 12:00  
(2025. 7. 22.(화) 조간)

배포

2025. 7. 21.(월)

## 스타트업 특허상표 출원 시 자금조달 최대 17.1배↑... 엑시트 가능성 2배 이상↑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 선행 시, 자금조달 가능성 1.7~6.3배 증가 -
- 특허·상표 출원 활동 규모가 20건 이상이면, 자금조달 가능성 17.1배까지 상승 -
- 스타트업 엑시트 가능성도 미리 특허·상표 출원 시 2배 이상 증가, 최대 5.9배 상승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시트(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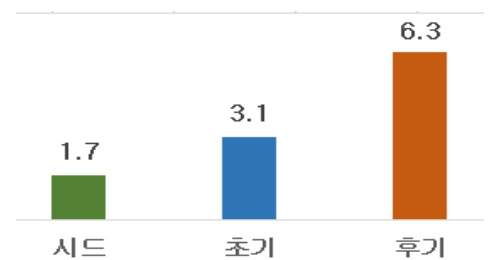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월)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시트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활동 선행 시, 자금조달 가능성 1.7~6.3배 증가>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특허상표의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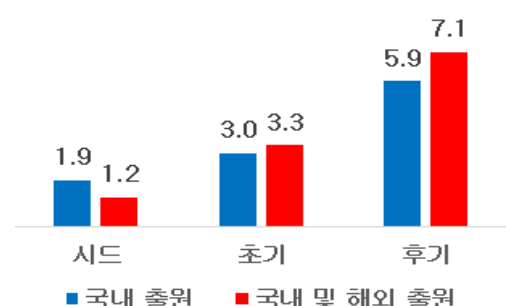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 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 <후기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활동으로 17.1배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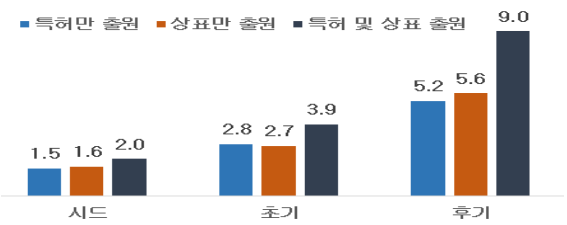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국내외 특허상표의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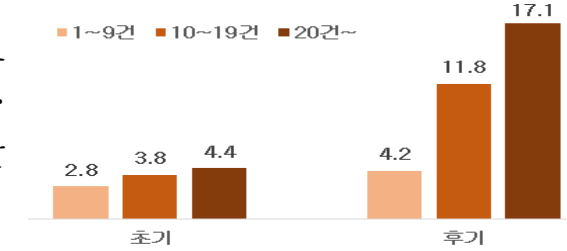
스타트업이 확보하려고 하는 지식재산의 종류도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 출원과 상표 출원 활동을 함께 선행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9배까지 높아졌다.

<특허·상표 활동 병행 시의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효과>



또한,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규모가 자금조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를 20건 이상 출원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무려 17.1배까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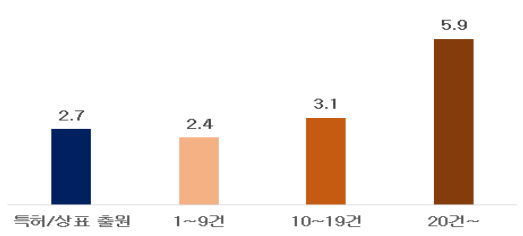
<특허·상표 출원 규모별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효과>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엑시트 가능성 2배 이상 증가>**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IPO 또는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상표 활동 규모별 엑시트 가능성 증가 효과>



또한 스타트업이 국내외 특허·상표를 20건 이상 출원하는 경우에는 엑시트 가능성이 최대 5.9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도 지원해야>**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국·유럽처럼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에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부도 스타트업에 자금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을 함께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정보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며,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혁신의 가치를 인정 받고, 투자 유치 등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보고서

담당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진흥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 덕 원 (044-202-4225)
		담당자	전문관	류 지 연 (044-202-422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 창 대 (042-481-5168)
		담당자	사무관	김 한 식 (044-481-5662)

